고흥 녹동 신항, 제주 물류 전진기지 육성 박차

공영민 고흥군수-오영훈 제주도지사, 교류 협력 프로젝트 가동

항만 개발 현장 찾아 물류 기지화 논의…올해 화물 120만t 운송

고흥군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고흥 녹동 신항을 제주 물류 전진기지의 중심지로 활용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흥군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녹동신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흥을 제주발 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 지사의 녹동신항 방문은 공영민 고흥군수와 지역 농·수협 조합장, 고흥항운노조 위원장, 주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의 녹동신항 방문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흥-제주 교류 협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뤄졌다.

'고흥 녹동신항의 제주 물류 전진기지화'를 통한 물류 협력으로 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전남도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현재 공사 중인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 부두 신설 계획을 설명했고, 고흥군 이정완 해양수산과장은 녹동신항~제주 간 여객, 화물선 현황 및 물동량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기준 고흥군 녹동신항을 통해 연간 17만 대의 차량과 22만 명의 이용객들이 제주 항로를 이용했다. 제주에서 녹동신항을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되는 화물량은 94만 t에 달하고 올해는 약 120만 t의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민 군수는 오영훈 지사와 함께 녹동신항의 항만시설을 점검하면서 "제주와의 물류 협력을 확대해 녹동신항을 제주도의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면서 "대형여객 및 화물선 유치를 위한 항만개발을 추진해 최종적으로는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오 지사 방문에 맞춰 흥양농협·서귀포농협과 농수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오영훈 제주지사 초청 특강을 마련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공영민(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고흥군수와 오영훈(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6일 녹동신항에서 관계자로부터 항만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만권에 '오감 체험 숲' 사계절형 복합관광지 조성

3만7927㎡ 규모 20억원 투입

고흥군이 고흥만권역에 사계가 살아 숨쉬는 '오감 체험 숲' 조성을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사계절형 복합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감 체험 숲 조성 사업'은 고흥만 권역에 산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숲을 통해 지역민 및 방문객의 다양한 힐링 욕구를 충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고흥군은 도덕면 용동리 일원 3만7927㎡ 면적에 총사업비 20여억원을 투입해 '숲'을 주제로 경관숲과 향기숲, 휴식숲 등 3개 테마로 특색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경관숲은 기존 식재를 보완해 고흥만의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향기숲은 금목서 등 향기나는 수종을 식재해 청정자연에서 향을 느끼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휴식숲은 계절별 테마식재를 해 휴식 활동이 가능한 힐링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고흥만에 생태활동 공간을 활용한 힐링 숲이 조성되면, 옥외 환경개선과 녹지량 확충을 통해 자연 속의 숲 환경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돼 지역의 힐링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지구 공원 일대에 부족한 숲 공간을 확보해 놀이문화, 물놀이시설, 수변노을공원 등 다양한 테마가 숨 쉬는 관광지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찾아가는 평생학습 구례군 마을학교 운영

구례군이 찾아가는 평생학습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평생학습 마을평생학습학교란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 스스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마을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22개 마을이 지정되어 마산면 냉천마을과 하사마을, 산동면 정산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마을에서도 6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다.

웃음치료, 요가, 노래교실, 도자기, 목공예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멀리 나가지 않고도 마을 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군은 이와 함께 가정 형편이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한 마을 어르신 및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이차전지 채용약정 인력양성' 수료자 전원 취업

상반기 교육생 50명 조기 수료

하반기에도 50명 3개월 교육

광양시는 '이차전지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사업' 수료자 50명 전원이 교육 수료를 6주 앞두고 조기 취업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차전지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사업은 광양시가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소재산업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해 관련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광양시·고용노동부·전라남도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고 광양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7억원(국비 5억6000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 1억2600만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분야 인력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총 100명을 양성한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00명씩, 3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3개월 과정으로, 지난 4월2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7월21일 수료 예정이었으나, 교육생 전원이 모두 교육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취업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는 상반기 교육생들의 뛰어난 역량과 시의 전폭적인 교육 지원에 힘입어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서 지역인재를 대거 채용하는 보답 형태로 이뤄졌다.

교육생 1명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에 지난 5월31일 출근했고, 49명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생산·판매하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 수료식을 마친 다음 날인 16일부터 출근한다.

특히 많은 교육생이 입사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국내에서 광석 원료를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급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로, 율촌산단 6만평 부지에 9200억원을 투입해 1, 2공장을 만들어 연산 능력 총 4만3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 교육과정은 7월 중 모집 예정으로, 8월 초 교육을 시작해 11월까지 완료해 상반기와 같이 전원 취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15일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의 상반기 수료식이 열렸다. 〈광양시 제공〉

곡성군 여름 휴가철 대비 농촌관광 휴양시설 35곳 안전·위생 특별점검 실시

곡성군이 여름 휴가철 대비 관내 농촌관광 휴양시설에 대해 안전·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 내 농촌관광시설 108개소 중 농어촌민박 10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 관광농원 10개소, 농촌관광휴양단지 1개소로 총 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곡성군 농촌관광 휴양시설 담당 부서를 비롯해 담양소방서, 전기 및 가스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7명이 점검반으로 편성됐다.

점검반은 물놀이, 화재, 위생, 누전차단기 등 분야별 주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비상 대피경로 확보, 물놀이시설 주변 위험 요소, 소방·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 등 안전 분야와 식재료·조리실과 개인위생 관리 등 위생 분야도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흡한 부분 은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함께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해 후속조치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지역 농촌관광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순천시에서 운영 했던 웰니스 노르딕 워킹 학교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웰니스 노르딕 워킹 100일 체험 함께해요

순천시, 100명 선착순 접수

순천시가 시민 건강 걷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순천의 자연경관을 보며 매일 함께 걷는 '순천 웰니스 노르딕 워킹(북유럽식 걷기) 100일 체험단'을 26일부터 운영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체험단은 매일 오전 6시 30분에 팔마대교 아래 에어로빅 광장에서 만나 북유럽형 양손 지팡이를 활용한 스트레칭과 함께 팔마대교에서 꿈의 다리까지 왕복 10㎞를 걷는다.

북유럽식 걷기 함께하기 외에도 사전·사후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매월 1회 걷기 건강강좌 등을 100일간 운영한다.

시는 100명을 선착순 접수하며, 북유럽식 걷기 100일 체험단 참여를 원하는 순천시민은 25일까지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북유럽식 걷기는 양손 지팡이를 이용해 걸으면서 체중을 분산시켜 무릎과 관절의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 근육의 90%를 사용하면서 근력은 늘리고 체지방은 감소시켜 주는 운동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습지, 동천, 봉화산 둘레길, 와온해변, 화포해변 등 전국의 대표적인 웰니스 건강명소를 함께 걸으며 시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며 이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웰니스 노르딕 워킹 학교가 8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기 50여 명의 수강생이 교육받고 있다. 수료 후 노르딕워킹 동아리로 전환해 매주 1회 함께 정기적인 걷기를 통해 건강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워케이션 사업에 참여한 직장인들이 곡성 심청한옥마을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회의를 하고 있다.

일·휴식 동시에…'워크빌리지 인 곡성' 확대

곡성군 심청한옥마을 일터 제공

곡성군이 자연속에서 직장의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work+vacation)' 사업을 확대한다.

곡성군은 지역형 워케이션 사업인 '워크빌리지 인(in) 곡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해 심청한옥마을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기업인들이 심청한옥마을에서 4~5일 정도 머물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구축했으며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등을 마련해 제공했다.

또 신입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퇴근 후 개인 생활 보장'을 위해 1인 1실을 제공했다. 직장인들은 자연 속에 있는 심청한옥마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주변 관광지 등을 여행했다.

워케이션 사업 첫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42개 기업 187명, 지난 4월 27일부터 6월까지 23개 기업 임직원 140여명 등 최근까지 110개의 기업이 심청한옥마을에서 실적을 쌓았다.

또 지난 4월 27일부터 6월까지 23개 기업의 임직원 140여명이 심청한옥마을을 방문해 직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참여 기업 중 98%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 곡성군은 하반기부터는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 등 전문 직군을 대상으로 포레스트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확대한 프로그램인 '워크빌리지 인(in) 곡성'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향올래 공모사업인 '워케이션 분야'에 선정되면 심청한옥마을의 유휴시설들을 보수하고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옛 삼기중학교 부지에 가족체류형 농촌유학과 워케이션 청년 거주 시설을 조성해 단기간 머무르는 형태를 벗어나 장기적으로 곡성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시 자전거 무상 점검 21일부터 27개 읍면동 순회

여수시가 21일부터 11월까지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무상 이동 수리반'을 운영한다.

자전거 무상 이동 수리반은 돌산읍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운영된다. 타이어 공기 주입, 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 경미한 고장에 대한 수리와 부품을 교체해 준다. 자전거 자가 정비와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방문 일정과 시간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주차차량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저탄소가 아닌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필수"라며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해 시민건강 증진과 녹색도시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